

일체 살아나가는 생활이 그대로 심성과학이며 도며 진리!

19면에서 계속

를 갔으려고, 저 속을 썩이려고 이렇게 나왔더니 저, 저기 찢은 듯 부신 듯 하나가 에이, 이거 뭐 안 되겠어!' 그러고서는 달리 생각하고, 그 착한 마음과 더불어 자기도 그 뜻을 알고서 착해진다 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망상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녹이라는 겁니다. 낚시 녹이라는 거지 끊을 게 어디 있습니까? 망상이 없다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으니 망상을 끊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것이고 한마음으로 들리라는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굴리고 돌리고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저놈, 조거, 너!' 이렇게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너, 부모 보자. 들어오기만 해 보라.' 하고 있어 보십시오. 들어 오면 영동하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영동하게 '아! 뭐!' 그리고 짝짝 악을 쓰고 외려 한 술 더 뜹니다. 그러니까 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화목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로 본다면, 자기와 같이만 본다면 자비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의리도 나오고 도의도 나오고, 거기에서는 무궁무진하게 자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비가 그제 향기와 같이 거기까지 바로 풍겨서 에너지를 같이 거기에 바로 여러분이 공생을 하고 있으니까 공심으로 공을 하고 있고 공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것이 그 마음의 향기 에너지는 거기까지도 다 밝아지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 외려 들어오기도 전에 바깥에서는 '아, 이거 미안한데!' 하고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보! 나 참 미안한데!' 하고서 이런 말 한마디를 들을 때 그냥 겨울에 고드름이 그냥 녹아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녹아떨어지죠. 그러한 마음이 녹아떨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장본인입니다.

사랑을 주는 거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주는 것이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도 주기만 하면 언젠가는 받게끔 돼 있으니까요. 내가 해 놓은 거 어디 가겠습니까? 나쁜 일을 해 놔어도 나한테 올 것이고 좋은 일을 해 놔어도 나한테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준다면, 자비롭게 의리를 도모하고 참 그렇게 믿는 데에 인내가 있다면, 물러서지 않는다면 모두가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사랑하고 또 화목하게 이렇게 생활이 진행돼 나가는 것입니다.

위패와 천후문에 대해서

스님, 율 한 해에도 강건하시어 이 어두운 미망의 사바세계에 지혜의 깨달음을 널리 펼쳐 주시기를 발원합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절에서 천도제를 지낼 때 영단에 위패를 해서 올리고 천후문을 읽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위패와 천후문을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

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때 위패와 천후문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제사를 지낼 때 위패를 해 놓고 영가를 청하고 그러죠? 건더기가 없으면 영가가 어디 붙을 자리가 없어서 못하니까 위패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도 이 모습이 없으면 나 자신의 자성신(自性神)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거죠. 있다 할지라도 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내 주인공에 모든 조상들을 모셔 놓고 그렇게 거기다 넣어두 드려지지 않습니다. 수십 명의 영령들을 넣어두 드려지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두드러지지 않으니 나 그 세계의 영령들이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 세상이 활짝 풀렸거든요. 세상이 다 터졌어,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현재의 사람이 모두가 공부하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일체제불의 마음과, 일체 중생이 돌이 아니게 그냥 딱딱 곳곳마다 통하지 않는 데가 없고 곳곳마다 보이지 않는 데가 없고 아, 탁 풀렸으니 쉼 바라겠어요. 그 영령들이, 그러니까 모두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바람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서 이 세상 어느 곳에 다 내놔도 손색이 없죠.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야. 그랬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안다 하면 우리 마음에서 별저 다 모셨고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놓고서 판결을 한 거죠. 어머니 아버지든 형제든 누구든 이 세상을 놓고 보아 주고 돌려 주고 얹혀 주고 하면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분한테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고 덜함도 없이, 배고프다 배고프지 않다 없이 이렇게, 즉 말하자면 도리천 좌(座)에 전부 한자리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는 반면에 위패는 써 놓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거를 새로 또 물 한 그릇 떠 놓은 데다가 사르는 거는 해방을, 즉 말하자면 영혼을 불들어매 놓지 마라 이런 겁니다. 위패에 불들어매 놓으면 영혼이 거기에 부착이 돼 가지고 산 사람도 귀찮고 죽은 사람도 귀찮을 겁니다. 또 위패를 해 놓더라도 그렇게 태워야 하고 천후문을 써 가지고 읽더라도 그 천후문하고 위패하고 둘 다 다 태워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절에 가 보면 벽면 가득히 위패를 붙여 놓는데 지금 시대에 그게 걸맞습니까? 첫째, 걸맞지 않고 둘째, 또 우리가 고상하지도 못하는데 영령들을, 조상님들을 모실 때 그것은 모셔서 불들어매 놓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미국에 부모들을 모셔다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방에다 가두어 놓고는 그냥 그냥 자기네들만 돌아다니는 것과 같이, 조상들을 꼼짝 못하게 위패를 해서 붙여 놓고서 그냥 자유스럽게 가고 들지 못하게끔 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조상을 나의 생명과 같이, 내가 또 조상이 되고 자식이 되고 조상이 되고 하는데 거기가 공중 공중 놓고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낼 때 부모를 모셔다가 대접하고서 그냥 또 자유스럽게 해드릴 수 있게끔 위패를 태워 드리는 겁니다. 태워 드릴 때도 물을 큰 그릇에다 떠다 놓고 향 피워 놓고 초 켜 놓고 태워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식들을 가두어 놔도 죽겠느냐 살겠느냐 하고 비푸로 나가고 야단들인데 아, 체가 없다고 조상들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 조상이고 조상이 죽 우리들이니깐요. 그렇게 해 놓는다면 그 조상들이 빨리빨리, 우리가 개선을 해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것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만 위패를 꼭 해 놓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꽃 한 송이라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위패를 해서 써 놓지 않는 대신에 천후문을 씁니다. 이거는 일체 조상님들 어떠한 분이라도 이게 활아버지의 아들이 있고 아들이 또 아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죄 천지 아닌 게 없으니까 일체를 다 넣어서는 될 먹었다, 나는 왜 안 찾느냐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체를 넣으면 됩니다. '일체 조상님들 모두 부처님 자리에 한자리를 하시고 이렇게 좋은 데로 한자리를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천후문을 써

고 담고 그런 거, 맛이 없고 있는 거 그런 거를 쪽 차려 놓고선, 자주 관습에 얽매고 집착에 얽매이고 그러게끔 만들어서 오히려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치가 지금 너무도 많습시다.

그런데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서 그런다면, 그 음식이 맛있고 맛있고 덜 차리고 더 차리고, 이런 데만 집착을 하고 온통 그냥 이집 저집 일가친척으로 다니면서 살아 있는 것처럼 내 맘도 들지도 않고, 내가 와도 본 척만 척하고 이리라고 사단이 벌어지죠. 그래서 죽은 집에 가서, 죽은 사람이 자기 죽었다는 걸 인안 안 하고 산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 어정거리다가 일가친척이 오면 자기를 본체만체했다고 탁 그냥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다박지르면 그게 병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이 마음공부를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생활 자체가 교재고 생활 자체가 바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재료니깐요. 이제 위패도 그, (재) 지내는 거와 결부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나섰지 해답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나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당시에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게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지금까지도 그냥 여하게 살아계시고, 죽는다 산다 하는 게 없이 그냥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받아서, 우리가 잘 심사숙고해서 듣고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데에 목표를 뒀어 되겠습니까.

물질적인 발전만이 전부가 아닐 텐데...

지금의 시대는 물질문명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만큼 심성에 관한 문제는 너무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폐해도 심각하여 자연계는 물론이거니와 인간 정신문명의 피폐함으로 인해 모든 것이 경제적인 논리로만 해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발전만이 전부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마음을 내야 하는지요?

우리는 머리로 물질과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써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체 만법의 만물만생이 전부 진화해서 고정됨이 없이 모습을 바뀔 갈모로 해서 이렇게 광대무변하게 세상이 펼쳐졌다는 것을, 확산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머리로써 돌아오는 이 오신통을 넘어서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오신통 다섯 가지, 이게 지금 세상에 컴퓨터나 모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원한 자기의

무전자의 컴퓨터가 그렇게 무전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의 다섯 가지 요소가 다 자기한테 들어 있는 겁니다. 그건 왜?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진 하나의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바로 그 다섯 가지 요소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리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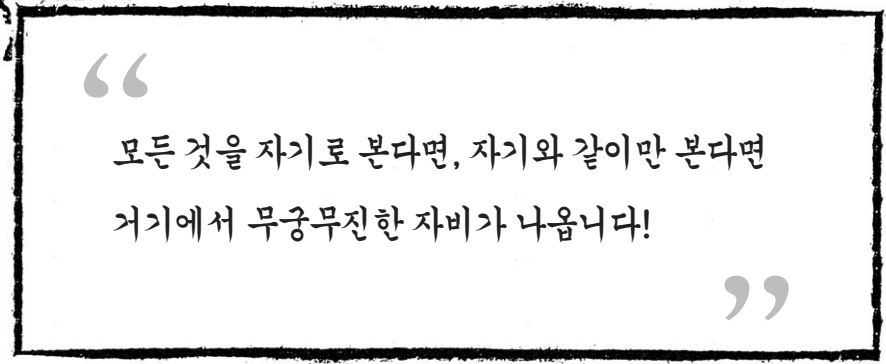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는 다섯 가지에 말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할 때에 똑똑히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우리 인간이 말리고 있고 자유자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꼭 심부름을 해야 만이 컴퓨터가 움직여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사기나 천체망원경이나 또는 무전기나 탐지기나 이런 것이 다섯 가지가 다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영원히 이 무전자의 유전자로, 무전자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그 유전자 바로 거기에 공(空)해 있다는 겁니다. 자연이 거기에 공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물질적으로 연구해 낸 겁니다. 연구해 냈어도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런 움직여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데로 나오는 것, 일체 모든 살아가는 생활이 그대로 심성과 학이며 도며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우리가 앞으로 자라나는 애들을 키우면서 그 자라나는 애들이 또 주인이 되면서 일꾼이 되면서,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갖지 않고는 앞으로 더욱 더 힘에 겨운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거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문제겠죠.

여러분도 지금 살아 있으면서 이 도리를 모르고 몸이 있을 때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담 그 잡재의식 속에 들어 있는 대로 팔팔팔팔 될 겁니다. 나로서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근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주간 법계(宇宙間法界)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문제를, 왜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생각에 가장을 이끌어 나가며, 내 몸을 이끌어 나가며, 사회를 이끌어 나가며, 국가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도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처하는 사람도 지금 균형을 잡아서 불바람이 칠 때는 바로 불바람으로 막아야 하고 불바람이 칠 때는 불바람으로 막아야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 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잘 이끌어 나가면 보이는 세계로 잘 이끌어 가는 그런 도리를 정처하는 사람일수록 잘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 끌고 가면 온 국민이 다 구렁이에 빠지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봄과 동시에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제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로 본다면, 자기와 같이만 본다면 거기에서 무궁무진한 자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 드린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지요. 그리고 주인공에 나중에 다 맡기시던 되구요.

또 천도를 시킬 때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그렇고요. 음식을 잘 차려서 이렇게 해 놓는다면 '너는 인제나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렇게, 쓰고 단 거를 먹어 가면서 고생을 해라.' 하고 묶어 놓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밥 한 그릇 가지고 이 세상 만물만생을 다 먹이고도 밥 한 그릇은 되밧았느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짜

해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해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1 대령/관욕	17 지장불공	33 아침저녁중성
2 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18 삼대화상중명불공	34 향수해례예불
3 상용영반	19 종사관욕	35 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4 회심곡(화칭)1	20 종사영반	36 생일불공
5 회심곡(화칭)2	21 가사불사의식	37 상주권공48제의식 1
6 구병시식	22 신중작법39위	38 상주권공48제의식 2
7 관음시식	23 간단한 신중작업	39 상주권공48제의식 3
8 점안의식	24 전통조석예불	40 상주권공48제의식 4
9 방생의식	25 천수경/장엄염불	41 제사불공
10 사물 다루는 법	26 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42 삼신이운
11 안택	27 사시상단불공	43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1
12 시다림	28 작법무(복청계천수)	44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2
13 산신불공	29 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계)	45 화엄시식
14 미타불공	30 작법무(육건만다라선송대계작법)	46 약사여래불공
15 신중불공	31 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47 교재2권 100,000원
16 관음불공	32 삼보통청	

제10기 의식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며, 법패 등계특별교육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 비디오 약 25,000원 / DVD 약 30,000원 ◆ 계좌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 제품 구입처 : 종무소 ☎ 062)362-8604 / 해공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학장 해공스님

진정한 스님처럼 기소와 법패신도들의 교육을 잘 키워 주는 교육 장소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2008년 제 10기 신입생 및 통신생 모집

- ◆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임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 ◆ 과 목 : 법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제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 각종소, 낭독하는법
 - 걸채비 : 바라춤, 도량계작법, 다계작법(나비춤), 사물다루는법, 화칭(회심곡)
- ◆ 과 정 : 2년(4학기)
- ◆ 입 학 식 : 2008년 3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 통신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시까지
- ◆ 상좌 각배교육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1학년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5시 30분까지
-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2동 759-14(우 502-242)
- ◆ 학 장 : 해공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 ◆ 계좌번호 : 농 협 641010-56-000296 (예금주:노연숙)